2018. 9. 3 438 호

세계도시동향

헤드라인뉴스	1	‘젊은 한부모의 새 가정’ 지원사업 시행	오사카
산업·경제	4	해외기업 밀집지역에 투자센터 ‘오픈’	자카르타
사회·복지	6	‘돌보미 체계적 지원’ 범정부 전략 수립	빅토리아
	9	절차 대폭 간소화로 新주택안전망제도 활성화 유도	일본
행재정·교육	11	‘파리 시민사회 교차로’, 시민참여·연대 공고화 밑거름	파리
	13	시카고 등 세계 8개 도시와 자매·우호도시 결연	오사카
도시교통	16	가혼강 수변공간, 대표적 공공공간으로 ‘시민 사랑’	보르도
도시계획·주택	19	건강한 도시 등 3대 도시상 제시하는 ‘2050 도시비전’	에든버러
	21	사람 중심 도시 등 5개 방향 담은 ‘회복 탄력적 도시’ 전략	시드니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의
정책 수립 및 도시 분야 연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세계 선진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시의성 있는 정책사례를 신속하게 발굴하기 위해
세계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해외통신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간과 관련된 문의사항과
발간에 참고할 만한 의견, 개선사항 등이 있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출판팀 정연우(02-2149-1017,
cyw797@si.re.kr)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케이프타운	김소망
암스테르담	장한빛
베를린	신희완
	유진경
	홍남명
뉴욕	윤규근
	이수진
	이정근
	정수지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샌프란시스코	김민희
시애틀	강민규
시카고	김영준
스톡홀름	문선우
	허윤회
바르셀로나	진광선
런던	오도영
버밍엄	정기성
피렌체	김예름
자카르타	박재현
도쿄	박재호
	이용원
오사카	권용수
베이징	박성은
상하이	문혜정
에드먼턴	장지훈
토론토	고한나
	김용훈
보르도	김준광
파리	배세진
시드니	정용문

‘젊은 한부모의 새 가정’ 지원사업 시행

혼인·사실혼 포함… 가정생활 도우미 파견·연간 3회 ‘급부금’ 지급

일본 오사카市 / 사회·복지

○ 일본 오사카市는 혼인(사실혼 포함)으로 새로운 가정을 꾸린 젊은 한부모가 기존에 받던 한부모 지원의 자격을 상실한 이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혼인 당시 나이가 25세 미만이고 가구 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는 월 2만 엔(20만 원)의 급부금을 연 3회에 나눠 지급하고 가정생활 도우미를 파견하는 지원사업을 올 4월 1일부터 시행

– 배경과 개요

- 시는 아동부양수당 지급과 의료비·교육비 지원 등의 한부모 지원정책을 시행 중
  - ◦ 18세 이하의 어린이를 보호·감독하는 한부모 양육자 중 1명에게 지급
  - - 지원 대상 가정의 어린이가 18세가 된 이후의 첫 3월 31일까지 제공
  - ◦ 아동부양수당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 - 피부양아동이 1명일 때는 42,500엔(42만 5천 원), 2명이면 52,540엔(52만 5,400원), 3명일 때는 58,560엔(58만 5,600원)
  - ◦ 2018년 8월부터 일정요건을 갖춘 한부모에게는 소득공제 시 과부·홀아비와 마찬가지로 최대 35만 엔(350만 원)을 공제
  - ◦ 이외에도 가정 의료비, 고등직업훈련 촉진 급부금, 전문학교 수험대비 급부금, 자립지원교육훈련 급부금, 법률·생활 상담 등을 지원
- 최근 시정부는 혼인으로 새로운 가정을 꾸린 한부모가 기존에 받던 여러 지원이 끊겨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는 것을 우려해 ‘젊은 한부모 새 가정 지원사업’을 시행
  - ◦ 젊은 층의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젊은 한부모를 지원 대상으로 설정

– 주요 내용

- 혼인(사실혼을 포함)을 선택한 젊은 한부모의 새로운 가정을 지원
  - ◦ ‘가정생활 도우미’를 파견하고, 정보제공이나 다른 기관과 연계 시행
  - ◦ ‘오사카 젊은 한부모의 새로운 가정생활 지원 급부금’을 지급

[그림 1] 오사카 젊은 한부모 새 가정 지원사업 개요

- 지원 대상자는 다음 10가지 자격을 만족해야 함

① 오사카에서 기존에 자녀부양수당을 받던 사람

② 혼인(사실혼 포함)으로 아동부양수당 수급자격을 상실한 때의 나이가 25세 미만

③ 2018년 4월 1일 이후에 아동부양수당 수급자격 상실을 신고한 사람

④ 오사카시에 주민표가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⑤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닌 사람

⑥ 급부금 신청 전에 받던 아동부양수당의 대상 아동과 동거 중일 것

⑦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를 포함)가 이 급부금 제도의 신청자격을 가졌다면, 그 배우자는 급부금 신청을 하지 않을 것

⑧ 과거에 이 급부금 제도를 이용한 적이 없을 것

⑨ 가정생활 도우미의 방문을 받고 행정 설문조사에 협력할 것

⑩ 가구원 전원의 소득액 합계가 소득제한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소득제한은 피부양자의 수에 따라 다르며,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
  - ◦ 부양 아동이 1명인 가정의 연간 소득제한은 274만 엔(2,740만 원)
  - - 부양 아동이 1명 늘어날 때마다 소득제한은 38만 엔(380만 원)씩 증가
  - ◦ 가구원 전원의 연간 총 소득 합계에서 필요경비(급여 소득공제), 사회보험료(8만 엔(80만 원)), 기타 공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로 계산
- 다만 아동부양수당의 과불금을 완납하지 않은 때, 모자·부자·과부 복지 대출금의 체납금을 완납하지 않은 때, 한부모 의료비 지원의 반환금과 각 사업의 연체금을 완납하지 않은 때는 급부금이 지급되지 않음
- 급부금은 대상자가 27세가 되기 전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되며,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을 중단
  - ◦ 혼인관계가 해소된 때, 급부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기타 위의 자격 조건 ①~⑩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지급액은 1개월당 2만 엔이며, 연 3회(4, 8, 12월)에 나누어 지급

http://www.city.osaka.lg.jp/kodomo/page/0000442248.html

http://www.city.osaka.lg.jp/kodomo/cmsfiles/contents/0000442/442248/youkou.pdf

http://www.city.osaka.lg.jp/kurashi/category/3002-2-2-0-0-0-0-0-0-0.html

권용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

산업·경제

해외기업 밀집지역에 투자센터 '오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州 / 산업·경제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州는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투자자에게 투자 편의를 제공해 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을 개발할 목적으로 해외기업이 밀집한 남자카르타市 쿠닝안(Kuningan) 지역에 자카르타 투자센터(JIC: Jakarta Investment Center)를 지난 7월 31일 개소하고, 투자정보 안내와 국가공인 컨설턴트의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

- 주요 내용
  - 주정부는 해외기업의 투자를 국가가 직접 유치하고 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4월 '투자협력센터의 구성과 진흥에 관한 주지사령'을 제정
    - 주정부 지역개발기획국에서 투자센터를 설립하고, 올 7월 31일 개소
  - 투자기회 창출을 돕고, 투자의 전 과정을 관리·감독해주는 컨설팅 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
    - 지역 잠재력 개발을 위한 만남의 장소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투자기회 창출
    - 정부와 민간기업이 실제 투자과정상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도움
    - 국가 인증 컨설턴트가 투자과정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관리·감독해주고 투자 역량개발과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
    - 주로 해외 직접투자의 국가적 유치를 돕고 투자기회 관련 정보를 잠재적 투자자에게 제공
  -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관광 부문의 해외투자 유치를 독려
    - 관련 허가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사업 데이터 분석 등을 제공
    - 용도구역·도시계획 디지털 지도를 공유해 적법한 투자를 안내
    - 지난 4월에는 아랍에미리트(UAE)의 개발 콘소시엄을 초청하여 수디르만(Sudir-man) 지역의 대중교통중심 개발사업과 북부 해안가 안쫄(Ancol) 지역의 워터프론트 개발계획에 관한 공동 검토를 진행

- 주정부는 투자센터의 활동으로 연간 투자액이 2017년 108조 루피아(8.2조 원)에서 올해 120조 루피아(9.2조 원)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

[그림 1] 자카르타 투자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아니스 바스웨단 주지사

http://wartakota.tribunnews.com/2018/07/31/anies-resmikan-jakarta-investment-center

http://megapolitan.kompas.com/read/2018/07/31/13270651/dki-punya-jakarta-investment-center

http://megapolitan.kompas.com/read/2018/05/03/16015391/kejar-investasi-swasta-pemprov-bentuk-jakarta-investment-center-jic

박재현 통신원, jaehyeon.jay.park@gmail.com

사회·복지

‘돌보미 체계적 지원’ 범정부 전략 수립

호주 빅토리아州 / 사회·복지

○ 호주 빅토리아州는 가족 등의 일상생활을 보살피는 돌보미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정작 돌보미 자신은 건강과 재정상의 피해를 보기 쉬운 현실을 인지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빅토리아 돌보미 지원전략’(Victorian Carer Strategy 2018~2022)을 수립

– 배경

- 빅토리아주에는 73만 6,600명 이상이 돌보미 역할을 맡고 있으며, 주당 40시간 이상을 돌봄에 할애하는 사람도 6만 명에 근접
  - ◦ 주정부에 등록된 돌보미 73만 6,600명 중 32.5%(23만 9,100명)는 돌봄 대상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보살피는 1차 돌보미(Primary Carer)
  - ◦ 1차 돌보미 중 55세 이상의 고령자는 25%이고, 20세 미만도 10%를 차지
  - 1차 돌보미의 25%는 주당 40시간 이상을 돌봄 활동에 사용
- 돌보미들이 보살피는 대상은 주로 배우자(45%), 자녀(24%), 부모(21%) 등 가족이며, 친척이나 지인도 10%를 차지
- 빅토리아주 돌보미 활동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150억 호주달러(12조 90억 원)로 추산되지만, 돌보미가 되면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건강 문제도 발생할 우려
  - ◦ 돌보미는 웰빙지수가 가장 낮은 집단에 포함
  - ◦ 돌보미들이 타인의 건강을 돌보는 과정에서 자신의 건강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때가 많음
  - 40%가량의 돌보미가 만성적 건강문제를 안고 있으며, 3명 중 1명은 장애를 갖고 있음을 확인
- 돌보미 활동이 가정생활의 유지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
  - ◦ 70%의 돌보미가 여성인데, 이들이 돌봄을 제공하며 받는 스트레스와 시간·에너지 소요가 결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 50세 이하 여성 돌보미의 3명 중 1명, 50세 이상 여성 돌보미의 7명 중 1명은 돌봄활동 이후 이혼이나 별거를 경험

- 학령기 돌보미는 학업과 취업 활동에도 많은 지장을 받는 것이 현실
  - 25세 미만의 학령기 돌보미 대다수는 돌봄 의무 때문에 결석 등 학업에 지장을 받는 경험을 함
  - 9학년(우리나라의 중학교 3학년에 해당) 학생 돌보미의 학업성취 수준은 또래에 견줘 평균 18개월이 뒤처지는 것으로 조사
  - 대학생 돌보미는 재정적 손해뿐 아니라 취업 기회에서도 불이익을 경험

– 주요 내용

- 빅토리아 돌보미 지원전략은 다음 3가지 목표 아래 5가지 주요 영역을 설정하고 영역별 실행계획을 제시
  - 돌보미가 돌봄 역할을 의무감 때문이 아닌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
  - 돌보미에게 사회적·경제적 참여 기회를 제공
  - 돌보미가 건강과 웰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표 1] 빅토리아 돌보미 지원전략 주요 내용

주요 영역	문제	주요 실행계획
돌보미의 건강과 웰빙 제고	돌보미는 가족이나 친구와의 여가·사회 활동이 제약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기회가 적어 육체적·정신적 웰빙이 저하되기 쉬움	– '돌보미를 위한 모든 것'(Everything Carers)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동료 지지집단(Peer Support Groups)과의 관계를 촉진하며, 전문적인 서비스와 관련 정보를 제공 – 현행 '돌보미 지원 프로그램'(Support for Carers Program 2015)을 개정하여 돌보미의 육체적·사회적 활동 참여 기회를 늘릴 것
돌보미의 학업·직업 환경 지원 강화	돌보미에게는 학교와 직장에서 더 많은 유연성이 필요함	– 학교 당국과 협력하여 학생 돌보미의 정규 학업과정과 직업훈련 이수 지원방안을 마련 – 고용주들과 협력하여 돌보미 친화적인 직장 가이드라인(Carer Friendly Workplace Guidelines) 구축·실행
돌보미 지원 서비스 접근성 제고	돌보미들은 관련 지원서비스 정보 찾기에 어려움을 겪으며, 원스톱 서비스 채널이 없어 다른 기관을 여러 번 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경험	– '정신건강 돌보미 지원 프로그램'(Mental Health Carer Support Program)을 개발해 정신건강 돌봄을 제공하는 돌보미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 –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주정부의 '더 나은 건강' 채널(Better Health Channel) 사용을 홍보
돌보미의 재정적 부담 경감	돌보미 활동이 소득과 재정 안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재정지원 확대와 에너지 사용료 할인 등 생활비 관련 보조금 지원이 요구	– 현재 연방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돌봄급여와 돌봄수당을 홍보하고, 돌보미 소득조사를 합리화 – '돌보미 카드'(Victorian Care Card) 소지자의 생활비 경감 방안 검토
돌보미의 사회적 인정과 존중	돌보미는 사회적 기여도가 크지만 사회적 배제를 자주 경험하며, 돌보미들의 목소리가 관련 서비스 결정 과정에 잘 반영되지 않는 편	– 전 지역사회 차원의 돌보미 인식 제고 캠페인 시행 – 돌보미 집단의 다양성(청년·노인·다문화 출신·성소수자 돌보미 등)과 집단별 특수 욕구를 이해하고, 이에 맞는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을 지역사회와 공감

- 향후 추진계획
  - 돌보미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와 초점집단 면접을 진행하고, 관련 단체의 자문을 받아 돌보미 지원전략을 수립
  - 돌보미들로부터 주기적으로 피드백을 받고, 주의회의 돌보미 위원회 주관으로 연간 포럼을 개최해 돌보미 지원전략의 진행과정을 점검하고 검토

https://www.premier.vic.gov.au/better-recognition-and-support-for-victorian-carers/

https://www2.health.vic.gov.au/about/publications/policiesandguidelines/victorian-carer-strategy-2018-2022

https://www2.health.vic.gov.au/about/publications/policiesandguidelines/support-for-carers-program-guidelines-2015

정용문 통신원, jungraphael@gmail.com

절차 대폭 간소화로 新주택안전망제도 활성화 유도

일본 / 사회·복지

○ 일본 국토교통성은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주택확보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이들의 민간 임대주택 입주를 돕는 새로운 주택안전망 제도를 도입했지만, 집주인이 기존 주택을 주택확보 배려자용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절차가 까다로워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첨부서류 간소화와 심사시간 단축 등의 개선책을 마련

– 배경: 새로운 주택안전망 제도

- 주택 마련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세대인 '주택확보 배려자'(고령자, 장애인, 육아세대 등)는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지만, 공영주택은 크게 늘리기 어려운 상황
  - ◦ 이러한 상황에서 증가 추세에 있는 민간의 빈집·공실을 활용하는 새로운 주택안전망 제도를 2017년 10월 도입
- 민간 임대주택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주택확보 배려자의 입주를 거부하지 않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인과 입주자에게 관련 지원을 제공
  - ◦ 새로운 제도의 핵심은 ① 주택확보 배려자용 임대주택 등록제도, ② 등록주택의 보수와 임대료 지원, ③ 주택확보 배려자의 거주 지원에 있음
- 임대주택의 임대인은 주택확보 배려자의 입주를 거부하지 않는 임대주택을 각 지방정부에 등록
  - ◦ 다만 임대인은 '장애인의 입주를 거부하지 않는다'와 같이 입주를 거부하지 않는 대상을 한정할 수 있음
  - ◦ 각 지방정부는 등록된 임대주택 정보를 주택확보 배려자에게 널리 알리고, 주택확보 배려자는 그 정보를 토대로 임대인에게 입주 신청을 할 수 있음
- 국토교통성은 기존 주택을 보수해 주택확보 배려자 전용 임대주택으로 만드는 집주인에게 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 ◦ 주택확보 배려자용 주택을 빠르게 확보하고 공급을 촉진하는 효과 기대
  - - 보수공사 비용의 1/3 내에서 최대 50만 엔(500만 원)을 지원
  - - 내진 공사 등을 추가하면 50만 엔을 더 지원
- 입주자의 임대료와 보증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책 마련
- 관할 지방정부는 주택확보 배려자용 임대주택 입주와 생활을 지원하는 거주지원법인을 지정할 수 있음

- ◦ 임대주택 입주에 관한 정보제공·상담·관리 등의 생활지원, 등록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월세채무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

– 주요 내용: 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치

- 2018년 7월 2일 기준 주택확보 배려자용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이 1,034호에 그치는 등 제도에 활용한 주택의 부족 문제가 발생
  - ◦ 국토교통성은 주택확보 배려자용 임대주택의 등록을 늘리기 위해 부동산 관계단체나 지방공공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
  - - 그 과정에서 주택확보 배려자용 임대주택 등록 시에 신청자의 사무적 부담이 크다는 등의 문제를 확인
- 국토교통성은 2018년 7월 10일 관련 법률의 시행규칙을 개정해 신청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등록신청 시스템을 개선
  - ◦ 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관리위탁계약에 관한 구체적 내용 등을 삭제
  - ◦ 첨부서류 중 주변 약식지도, 배치도, 층별 평면도,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검사필증은 원칙적으로 불필요
  - ◦ 시스템 필수 입력 항목으로 되어 있던 가장 가까운 역까지의 소요 시간 등을 임의 기재 항목으로 변경
  - ◦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지방공공단체의 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우편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 등록 신청자와 등록을 담당하는 지방공공단체의 사무 부담을 대폭 경감해 주택확보 배려자용 임대주택의 등록 촉진을 기대

http://www.mlit.go.jp/report/press/house03_hh_000124.html

https://www.safetynet-jutaku.jp/guest/index.php

권용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

행재정·교육

‘파리 시민사회 교차로’, 시민참여·연대 공고화 밑거름

프랑스 파리市 / 행재정·교육

○ 프랑스 파리市는 시민단체의 외연을 확장하고 시민사회의 영향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2007년부터 ‘파리 시민사회 교차로’(CAP: Carrefour des Associations Parisiennes)를 창설하고, 시민단체를 만들고자 하는 시민에게 경영기술을 가르치는 등 교육활동을 펼쳐 작년에만 3천 명 이상이 관련 인턴십을 수행하고 40여 명이 시민사회단체 경영 자격증을 받음. 이는 파리시의 시민참여와 연대가 공고해지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평가

- 개요: 파리 시민사회 교차로
  - 시민사회의 영향력 강화를 목적으로 2007년 시정부 주도로 창설
    - 공적 영역과 구분되는 사적 영역으로서의 시민사회 전반이 대상
      - 프랑스어 Association(아소시아시옹)은 공식적인 시민단체뿐 아니라, 아파트 탁구모임까지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시민 간 ‘연대’(Solidarité)를 의미
    - 파리시장 안 이달고(Anne Hidalgo)의 주요 시정철학 중 하나인 사회적 연대 강화에 부합하는 기관
  - 파리 시민사회 교차로의 핵심 활동은 시 차원에서 시민사회 확장에 도움이 되는 공공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것
    - 활동은 크게 시민과 함께하고(accompagnement), 시민에게 조언(conseil)을 해주며, 시민을 교육(formation)하는 3가지 축으로 구성

- 주요 내용
  - 주요활동 1: 시민사회와 함께하고 필요한 자원을 제공
    - 시민단체를 만들고자 하는 시민에게 법률적·기술적 측면의 조언을 제공
    - 전담상담팀을 운영 중이며, 2017년에만 1,500여 건의 상담을 진행
      - 일반적인 것보다 더 세밀한 법률적·회계적 도움이 필요한 때는 변호사와 회계사 30여 명으로 구성된 특별 전담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음
    - 시가 보유한 시민사회 관련 문서와 자료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시민단체를 만드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주요활동 2: 시민단체를 만들고 경영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무료로 제공
  - 일종의 경영교육을 무료로 제공해, 이들이 큰 어려움 없이 시민단체를 만들 수 있게 도움
- 주요활동 3: 시민사회 관련 행사를 매달 개최
  - 포럼·축제·콘퍼런스 등 2천여 명 이상이 참여하는 행사를 매달 개최
  - 문화유산 관련 시민단체 세미나인 '유럽 문화유산 콘퍼런스', 자원봉사와 시민참여를 독려하는 '앙가주망의 밤'(※ 422호 참조) 등
- 파리 시민사회 교차로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교육'
  - 시민단체 경영수업을 매년 제공해 시민들이 더욱 전문적으로 시민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 시민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함
  - 37개 과목 258개 수업이 매년 열리며,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시민사회단체 경영 자격증'이 부여됨
  - 2017년에는 40여 명이 자격증을 받았고, 3천 명 이상이 인턴십을 수행
- 시민사회단체 경영 자격증은 교육을 이수한 뒤 시민단체 인턴십 수행, 보고서 작성, 심사위원 면접까지 모두 마친 사람에게 수여
  - 의무과목과 선택과목 포함 3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자신이 선택한 시민단체에서 직접 20시간 이상 인턴십을 수행해야 함
  - 이후 이 인턴십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의 주제를 선택해 시민사회에 관한 5쪽 분량의 간단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심사위원과 면접을 진행
- 파리 시민사회 교차로 37개 교육의 주요 과목
  - 시민단체 형성 프로젝트의 정의와 구성, 시민단체 형성과 SNS 활용, 시민단체 관련 법률 문제, 시민단체 내의 커뮤니케이션, 시민단체 형성을 위한 디지털 도구 활용, 시민단체와 언론 사이의 소통, 시민단체의 기부금과 회계 문제 등
  - 예시에서 알 수 있듯이, 실용적이고 경영학적인 교육이 주를 이룸
- 파리시의 강력한 시민연대의 바탕에는 이러한 시정부 차원의 노력이 있었음
  - 상대적으로 시민사회의 기반이 취약하고, 시민사회가 시민단체로 환원되기 쉬운 우리나라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로 생각됨

https://www.paris.fr/associations/ou-vous-adresser/le-carrefour-des-associations-parisiennes-cap-5382

https://www.paris.fr/formasso

배세진 통신원, prophet1013@gmail.com

시카고 등 세계 8개 도시와 자매·우호도시 결연

일본 오사카市 / 행재정·교육

○ 일본 오사카市는 1957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시와의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미국 시카고시, 중국 상하이시, 독일 함부르크시 등 세계 8개 도시와 자매·우호도시 결연을 하고 경제·기술·학술·문화·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하고 있음

- 개요
  - 세계 8개 도시와 자매·우호도시를 맺고, 폭넓은 분야에서 교류
    -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시카고, 브라질 상파울루, 중국 상하이, 호주 멜버른,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이탈리아 밀라노, 독일 함부르크
  - 자매·우호도시와는 5년마다 대표단 파견, 기념사업 시행 등 집중적 교류를 추진하며 관계 강화를 도모
    - 시정부뿐 아니라 시민과 기업, 각종 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경제·기술·학술·문화·스포츠 등 폭넓은 분야의 교류 추진에 힘쓰고 있음
    - 시 홈페이지에 자매·우호 도시 관련 정보를 공개

- 주요 내용
  - 샌프란시스코(미국)
    - 1957년 10월 7일 자매도시 결연, 1967년 10월 26일 자매항 결연(현재는 교류 중지)
    - 주요 교류활동: 시 대표단의 상호 방문, 샌프란시스코·오사카 자매도시협회 주최의 고교생 앰버서더 프로그램 파견학생 맞이 등
    - 최근 교류활동: 2016년 7월 샌프란시스코 고교생 앰버서더 오사카 방문, 2016년 8월 샌프란시스코 방문 톱 세일즈 실행 등
  - 상파울루(브라질)
    - 1969년 10월 27일 자매도시 결연
    - 주요 교류활동: 시 대표단의 상호 방문, 오사카시립대학과 상파울루대학 간 교류, 자매학교 교류, 스포츠 교류 등
    - 최근 교류활동: 2016년 3월과 2017년 2월에 오사카·상파울루 자매도시협회가 상파울루에서 개최된 일본어 스피치 대회, 변론대회 입상자 초청

- 시카고(미국)
  - 1973년 11월 9일 파트너 도시 결연
  - 주요 교류활동: 시 대표단의 상호 방문, 자매학교 교류, 변론대회우승자 초청·방문, 교육·사회복지 교류 등
  - 최근 교류활동: 2015년 6월 일본어 변론대회 '오사카시 자매도시상' 수상자 오사카 방문, 2015년 11월 시카고 사회복지 교류단 오사카 방문, 파트너 도시 결연 특별전 개최 등
- 상하이(중국)
  - 1974년 4월 18일 우호도시 결연, 1981년 10월 30일 우호항 결연, 1995년 7월 5일 비즈니스 파트너 도시 결연
  - 주요 교류활동: 시 대표단의 상호 방문, 행정교류(경제·수도기술·항만·도시공학·환경), 오사카시립대학과 상하이대학 간 교류, 스포츠 교류, 자매학교 교류, 동물 교류 등
  - 최근 교류활동: 2016년 6월 오사카에서 '2016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지구 투자환경설명회 & 인재정책 PR회' 개최, 2017년 3월 덴노지 동물원과 상하이 동물원 교류 등
- 멜버른(오스트레일리아)
  - 1974년 10월 9일 자매항 결연, 1978년 4월 24일 자매도시 결연, 1999년 6월 2일 비즈니스 파트너 도시 결연
  - 주요 교류활동: 시 대표단의 상호 방문, 비즈니스 교류, 자매학교 교류, 오사카시립대학과 멜버른대학 간 교류, 동물 교류 등
  - 최근 교류활동: 2016년 10월 오사카 대표단의 멜버른 방문, 2017년 1월 빅토리아주 일본어 스피치 대회 입상자 오사카 방문 등
- 상트페테르부르크(러시아)
  - 1979년 8월 16일 자매도시 결연
  - 주요 교류활동: 시 대표단의 상호 방문, 상하수도 분야의 기술 교류, 오사카시립대학과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학 간 교류 등
  - 최근 교류활동: 2015년 7월 상트페테르부르크시에서 오사카시 하수도 기술 강연, 2015년 8월 상트페테르부르크시와 자매도시 결연 특별전 개최, 2015년 11월 상하수도 분야의 기술 교류 각서 체결 등

- 밀라노(이탈리아)
  - 1981년 6월 8일 자매도시 결연
  - 주요 교류활동: 시 대표단의 상호 방문, 자매학교 교류, 예능·문화교류 등
  - 최근 교류활동: 2015년 6~8월 밀라노시와 자매도시 결연 특별전 개최, 2015년 9월 밀라노 국제 박람회에서 오사카의 음식과 관광 매력, 자매도시 교류 성과 등을 소개
- 함부르크(독일)
  - 1989년 5월 11일 우호도시 결연
  - 주요 교류활동: 시 대표단의 상호 방문, 오사카시립대학과 함부르크대학 간 교류, 자매학교 교류, 스포츠 교류, 시립도서관 교류 등
  - 최근 교류활동: 2015년 5월 함부르크시와 우호도시 결연 특별전 개최, 2015년 10월 함부르크 우호도시 문화교류 주자의 오사카 마라톤 참가, 오사카·함부르크 우호도시 기념사업 개최 등

www.city.osaka.lg.jp/keizaisenryaku/page/0000184422.html

권용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

도시교통

가혼강 수변공간, 대표적 공공공간으로 '시민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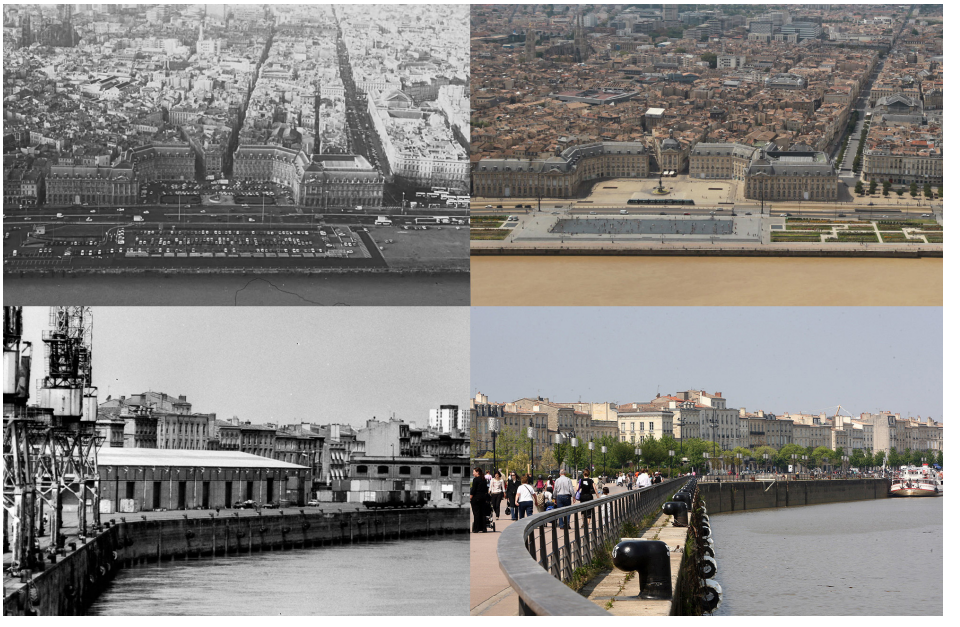
프랑스 보르도市 / 도시교통

○ 프랑스 보르도市는 도시와 강 사이의 연결을 단절시킨 채로 주차장과 빈 와인창고 건물 등으로 방치되었던 보르도의 젓줄 가혼강 수변공간을 10년에 걸친 개발 프로젝트 끝에 시민을 위한 완전한 보행공간으로 탈바꿈시켰으며, 이제 가혼강 수변공간은 많은 시민의 사랑을 받는 보르도의 대표적 공공공간으로 자리매김

- 배경
  - 와인 출입하지로 사용되던 가혼강변은 20세기 후반 산업화와 항구 이전으로 폐창고와 주차장·도로만 남은 버려진 지역으로 전락
    - 미관상 문제뿐 아니라 치안상으로도 관리가 나쁜 우범지역으로 낙인
  - 2005년 시내에 경전철 '트램웨이'가 운행을 시작할 때, 상당한 구간이 가혼강변과 나란히 지나게 되면서 길이 4㎞가 넘는 대규모 수변공원 조성공사를 시작
    - 2000년 알랭 쥐베 보르도 시장이 시내의 낙후되고 방치된 곳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기 시작할 때 가혼강변도 대상에 포함

- 주요 내용
  - 프랑스의 대표적 도시조경가 미셸 꼬라주의 설계에 따라 10년간 공사
    - 1999년 설계 공모전을 거쳐 당선된 설계에서 큰 변동 없이 공사가 진행되어 10년만인 2009년에 완공해 대중에게 공개
  - 프로젝트의 목표는 크게 4가지로 요약
    - 강을 마주한 도시 파사드(건축물의 앞면)와 강 사이에 앞마당정원을 조성
    - 눈에 보이는 차량의 수를 현저히 줄이기
    - 다양한 이동수단 간의 공간 공유
    - 사이트가 가진 고유의 심미감을 부각
  - 이로써 보르도 가혼강 수변공원은 시민 누구나 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

- 스포츠, 휴식, 산책, 명상, 낮잠 등 모든 활동을 위한 시설과 테마별 공간을 갖춤
- 총길이 4.5㎞, 폭 80m, 면적은 45헥타르(450,000㎡)



[그림 1] 가혼강변의 과거 풍경(왼쪽)과 현재(오른쪽)의 풍경 비교

- 강을 따라 다양한 성격과 계층의 동네가 공존하는, 4㎞가 넘는 양쪽 강변을 조화롭게 아울러야 하는 매우 민감한 프로젝트
  - 강의 남쪽은 주로 이민자와 가난한 계층이 살았고, 가운데는 부유층 거주지였으며, 그 위는 와인저장고 지역이었고, 북쪽 끝은 공업단지
  - 대체로 중립성을 유지한 채 고풍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분위기로 모든 지역의 성격을 아우르며 건축적 하모니를 성공적으로 끌어냈다는 평가
  - 사회적 계층과 접근성 면에서 가장 취약한 남측에 오히려 스포츠 공원을 배치하여 주말 가족단위 운동객이나 스포츠 동호회의 유입을 유도
  - 북측의 폐창고 건물들은 노천카페와 야외형 쇼핑갤러리로 리모델링되었으며, 현재 주말은 물론 항시 관광객과 쇼핑객으로 성황
- 이로써 더는 도시와 강이 단절되지 않게 되어 도시 이름 보르도(Bordeaux)에 걸맞은 이미지를 가지게 됨
  - Bordeaux라는 도시 이름은 원래 Bord(가, 가장자리) + d'eaux(물의) 의 합성어로 '물가'라는 의미

[그림 2] 가혼강 북측의 폐 와인저장고를 리모델링한 쇼핑갤러리

- 향후 계획
  - 보르도의 도시계획은 점점 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 몇 해 전 완공된 강변 북 끝단의 새 다리와 와인 박물관,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남측 쌩쟝(Saint Jean) 지역의 대규모 재정비 공사 등
  - 보르도시는 가혼강을 끼고 서쪽과 동쪽으로 나누어지는 구조이지만, 현재까지의 도시계획은 강서지역 중심이었으며 이 수변공원의 강변도 서쪽임
    - 장기적으로는 쌩쟝 지역과 북측 산업지역을 재정비해 대단위 비즈니스구역을 갖추고 강동지역과 개발 균형을 잡는 것이 목표

- 시사점
  - 이처럼 보행도시 계획은 단순히 보행자가 걷기 좋은 길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음
  - 더욱 장기적인 큰 그림을 잡고 그 과정 중에 하나의 요소로 포함되어 그림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모터로 작용하는 프로젝트가 되어야 함
    - 왜냐하면 성공적인 도시계획은 결국 많은 사람이 찾고 모이는 장소의 창조이며, 보행하기 좋은 장소, 자주 가기 좋은 장소, 추억을 만들어 주는 장소에는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이게 되기 때문

http://www.angers.fr/fileadmin/plugin/tx_dcddownloads/La_reconquete_des_quais_a_Bordeaux.pdf
https://www.sudouest.fr/les-docs-sudouest/michel-corajoud-a-transforme-bordeaux/
https://www.sudouest.fr/2017/12/11/c-etait-comment-les-quais-de-bordeaux-avant-des-photos-a-offrir-pour-noel-4014405-5138.php
https://www.youtube.com/watch?v=E9FXPZE_HCU
http://www.bordavenir.fr/2015/07/26/comment-bordeaux-transforme-radicalement-son-image/

김준광 통신원, junkwang.kim@gmail.com

도시계획·주택

건강한 도시 등 3대 도시상 제시하는 '2050 도시비전'

영국 에든버러市 / 도시계획·주택

○ 영국 내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인 에든버러市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공평하고 영감을 주는 도시', '건강한 도시', '스마트하고 번영하는 도시'라는 3가지 도시상을 제시하고 그에 맞는 실천전략을 담은 '2050 에든버러 도시비전'(2050 Edinburgh City Vision)을 발표

- 개요
  - 발전하는 도시에 걸맞은 중장기적 도시계획을 제시할 필요
    - 에든버러는 영국 내에서 빠르게 성장 중인 대표적 도시 중 하나로, 2040년에는 도시인구가 60만 명에 도달할 전망
    - 여행·관광·쇼핑 중심지로서 세계적 명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발전된 과학기술과 문화의 도시이기도 함
  -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 중장기계획을 제시
    - 대기환경 개선, 대중교통 이용률 높이기, 보건·복지 서비스 향상, 도보 친화적 환경 구축, 창의적인 공공공간 조성 등의 목표 제시

- 주요 내용
  - 지속가능한 중장기적 발전을 추구하는 3가지 도시 상을 제시
    - 공평하고 영감을 주는 도시(A fair and inspiring capital city)
    - 건강한 도시(A healthy city)
    - 스마트하고 번영하는 도시(A smart and thriving city)
  - 공평하고 영감을 주는 도시
    - 주요 목표: 시민과 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
      - 걷기 편한 도심: 도심 내 차량 비율을 줄이고 사람 중심의 공간으로 변화
      - 공공공간 개선: 공원 등 현재의 공공공간을 개선하고 새로운 공간을 조성

- 더 나은 접근성 제공: 사람을 중심으로 길찾기 편한 도시환경을 마련
- 중심가 기능 강화: 도심 내 걷기 좋은 공간 마련으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
- 대중교통 이용 편이성 향상: 버스, 트램, 자전거, 카셰어링의 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대중교통 이용 편이성을 높임
- 개인의 도시 여행 편이성 향상: 기술을 바탕으로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 건강한 도시
  - 주요 목표: 걷기와 자전거 이용을 홍보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장려해 대기오염을 개선하는 것
  - 활동적인 도시 만들기: 도심 내 도보·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관련 전략 수립
  - 대기 질 향상: 배기가스 저배출 구역(Low Emission Zone) 설정, 노후 차량 규제
  - 친환경 차량 장려: 전기차 보급 장려,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노력 등
- 스마트하고 번영하는 도시
  - 주요 목표: 도시의 포괄적 발전을 위한 물류서비스의 효율성 향상, 교통흐름 조절, 통합적 대중교통 시스템 제공 등
  - 대중교통 활동 영역 넓히기: 대중교통의 출발 지점과 목적지의 반경을 넓혀 효율성을 높이기
  - 지속가능성이 있는 도시 내 장거리 이동의 선택권 제공: '파크 앤 라이드'(Park and Ride)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연계 교통 옵션을 다양화
  -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비즈니스를 지원: 도심 내 대형 운송차량의 유입을 적절히 차단하여 도시환경을 지키는 동시에 물류 중심허브를 조성해 비즈니스 효율을 높임
  - 출퇴근 주차문제 조율: 직장주차장 확충 지원 등 주차문제를 적극 조율
  - 미래 지향적 도시 조성: 스마트 기술을 전 교통 영역에 도입

http://www.edinburgh.gov.uk/news/article/2530/reshaping_edinburghs_city_centre_for_future_generations
http://www.edinburgh.gov.uk/meetings/meeting/4508/transport_and_environment_committee

정기성 통신원, jkseong71147@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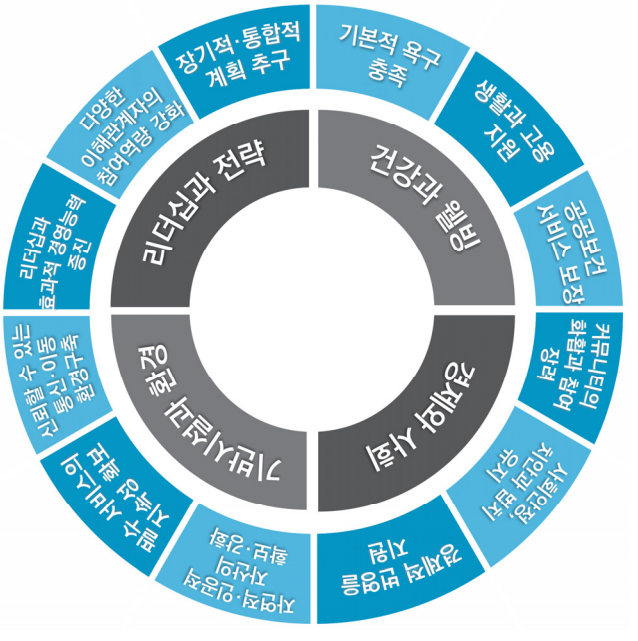
사람 중심 도시 등 5개 방향 담은 '회복 탄력적 도시' 전략

호주 시드니市 / 도시계획·주택

○ 호주 시드니市는 도시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우는 '회복 탄력적 시드니' 도시 전략을 지난 2년에 걸쳐 수립했으며, 기후 적응력 향상, 지역사회 강화, 시민 대응력 강화 등을 포함해 도시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5가지 방향과 35개의 실행전략을 마련

– 배경 및 목적

- 시드니시는 록펠러재단(Rockefeller Foundation)이 만든 '100대 회복 탄력적 도시'(100RC: 100 Resilient Cities)의 멤버
  - 21세기 들어 꾸준히 늘어나는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위기에 전 세계 도시가 더 회복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 기구
- 록펠러재단이 개발한 '회복 탄력적 도시 기본틀'(City Resilience Framework)을 시드니시의 상황에 맞게 응용해 회복 탄력적 도시 전략을 개발
  - 록펠러재단의 기본틀은 도시의 회복 탄력성에 관한 4가지 차원(건강과 웰빙, 경제와 사회, 기반시설과 환경, 리더십과 전략)과 12개의 추진전략으로 구성



[그림 1] 록펠러재단의 회복 탄력적 도시 기본틀

- 2016년 시의 회복 탄력성 실태를 파악한 예비조사 보고서를 작성
  - 시드니시가 직면한 위험과 해결해야 할 문제를 급성 충격(Acute Shocks)과 만성 스트레스(Chronic Stresses)로 분류
  - 예비조사 보고서는 시드니시가 다음과 같은 위험요인에 대응하기에는 취약한 기반시설과 자산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

[표 1] 시드니시의 위험요인 분류

급성 충격	만성 스트레스
단기간에 도시기능을 저하시키는 위험요인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도시기능을 저하시키는 위험요인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혹서, 강풍, 산불 등) ・세계금융위기 등 금융관리 실패 ・정전 등 기반시설 고장 ・디지털 네트워크 이상 ・사이버 공격, 테러 등	・보건서비스 수요 증가, 만성질병 증가 ・사회적 응집력 약화, 지역 간 불평등 심화 ・주택 부담능력 상실 ・교통수단의 다양성 부족 ・불충분하고 다양성이 부족한 고용 ・약물·알코올 중독

– 주요 내용

- 시드니시는 도시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5가지 방향과 구체적 실행계획을 제시
  - 5가지 방향: 사람중심 도시, 기후 적응력 향상, 연계를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 강화, 대비하는 시민, 하나 된 도시
  - 실행계획은 중점 실행계획(flagship actions), 지원 실행계획(supporting actions), 연관 실행계획(aligned actions)의 3단계로 구성
- 방향 1: 사람중심 도시(People-centred City)
  - 도시의 성장에 따라 불평등이 증가하고 기반시설과 서비스가 뒤처지는 문제에 대응
  - 중점 실행계획: 도시의 성장에 따른 충격과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
    - 2020년까지 구단위 지방정부의 지역단위 도시계획에 회복 탄력적 도시 전략의 내용을 통합
- 방향 2: 기후 적응력 향상(Live with the Climate)
  - 기후변화가 극심해지면서 온난화·가뭄·산불 등의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응
  - 중점 실행계획: 동단위 지역별로 도시기온을 낮추는 실행전략을 수립해 주택과 거리를 시원하게 만들기

- 지역별 기온저감 목표치를 설정하고, 도시림 조성과 취약계층의 기후변화 피해 감소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쿨 스코어'(Cool Score)를 도입해 지역별 기온저감 노력을 모니터링

- 방향 3: 연계를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 강화(Connect for Strength)
  - 언어적·문화적 다양성은 증가하지만, 다양성을 용인하는 정도는 줄어들고 불평등은 늘어나는 상황에 대응
  - 중점 실행계획: 사회적 응집력과 웰빙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시행
    - 현재 운영 중인 웰빙지수 관리를 정부, 기업,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해 취약분야를 중점 개선
- 방향 4: 대비하는 시민(Get Ready)
  - 음식·에너지·물·교통·쓰레기 등을 담당하는 도시의 핵심 서비스 기능이 약해지거나 마비되는 사태에 대응하는 시민의 능력을 향상
  - 중점 실행계획: '대비하세요'(Get Prepared) 프로젝트를 추진해 시민의 비상사태 대처능력을 강화
    - 앱을 이용해 시민에게 지역사회의 위험요소와 대처방법·지원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캠페인을 시행
    - 앱 이용자를 재난대비 훈련을 받은 시민으로 양성하는 전략으로, 앞으로 3년간 1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할 목표
- 방향 5: 하나 된 도시(One City)
  - 시드니시 운영에 관여하는 모든 정부(연방, 주, 지방) 간의 연계와 학계·재계·지역사회 등 비정부 조직의 역할을 강화
  - 중점 실행계획: '시드니 회복 탄력성 프로그램'을 도입해 각 정부와 기관에 맞는 역할을 규정하고, 기관 간 협력사업을 개발
    - 100개의 관련 기관을 프로그램에 초대하고 선언문을 채택할 계획
    - 시정부가 2015년부터 운영 중인 '회복탄력성국'의 기능을 강화하고 성과를 모니터링

https://news.cityofsydney.nsw.gov.au/media-releases/sydney-gets-prepared-with-first-resilience-strategy
http://www.cityofsydney.nsw.gov.au/vision/towards-2030/resilient-sydney
http://www.cityofsydney.nsw.gov.au/__data/assets/pdf_file/0013/303700/Resilient-Sydney-A-strategy-for-city-resilience-2018.pdf

정용문 통신원, jungraphael@gmail.com

ISSN 2586-5102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연구원 홈페이지
www.si.re.kr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twitter.com/seoulinstitute
www.facebook.com/seoulinstitute